

6,466명의 외국인, K-컬처 전 세계에 알린다

- 5. 19.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4,536명, K-인플루언서 1,930명이 함께 ‘한국 문화홍보활동가 발대식’ 개최, 온라인으로 생중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장호, 이하 해문홍(KOCIS))]은 세계인의 날을 맞아 5월 19일(금) 오후 2시, 코시스센터(서울 중구)에서 ‘2023년 외국인 한국문화 홍보 활동가 발대식’을 개최한다.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은 발대식에 참석해 홍보 활동가들을 격려한다.

해문홍은 국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 제13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129개국 4,536명과 ▲ 제4기 K-인플루언서(K-Influencer)** 105개국 1,930명 등 한국문화 홍보 활동가 총 6,466명을 공개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홍보 활동가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외국인의 시각에서 자신들의 모국어로 한국 관련 소식을 기사와 사진, 영상 등으로 제작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다.

* 해문홍이 운영하는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 다양한 언어로 한국 관련 뉴스 등을 제공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있음.

** K-컬처 전문 유튜브 콘텐츠 창작자

발대식에서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K-컬처라는 의미를 담아 ‘비욘드 더 케이(Beyond the K)’라는 주제로 홍보 활동가들이 유대감을 쌓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만큼 홍보 활동가 60명이 발대식 현장을 찾는다. 해외에 살고 있거나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내 거주 활동가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코리아넷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대식을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이번에 홍보 활동가로 선발된 독일 출신 카리나 씨는 한국에서 디지털

마케터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다. 평소 여행을 좋아해 한국의 새로운 곳을 발견하고 모두와 공유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 K-인플루언서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명예기자로 선발된 프랑스 출신 엘리사 씨는 경희대학교에서 관광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한국의 문화유산과 전통, 예술적 표현의 풍부함과 아름다움을 조명하는 기사를 작성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는 지역별로 ‘K-인플루언서’의 활동을 지원해줄 멘토를 정했는데 아시아 지역 멘토로 활약할 ‘네하*’ 디렉터도 발대식에 참석해 본인의 콘텐츠 제작 경험담을 공유한다.

* 한국에 거주하는 인도 국적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구독자 64만 4천 명의 ‘mylove fromkorea’ 채널 운영

조용만 차관은 “세계 최대 한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문화 홍보 활동가들은 한국의 소중한 친구이다. 홍보 활동가들이 만든 기사와 영상을 통해 한국과 K-컬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담당 부서	해외문화홍보원	책임자	과장직무대리	이성배 (044-203-3339)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담당자	사무관	황진영 (02-2125-3501)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지적브리핑

